

특조위 “세월호 CCTV 조작 가능성 有”

세월호 참사의 주요 증거물인 폐쇄회로(CC) TV DVR(Digital Video Recorder·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가 해군에 의해 인양된 첫 시점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세월호 특조위가 발표했다.

해군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빠른 시점에 CCTV DVR을 수거했고, 이 장치가 녹화된 영상도 누군가 먼저 봤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특조위 발표의 요지다.

세월호 CCTV 영상은 참사 발생 약 3분 전까지만 남아있어 그동안은 참사 순간의 선내 상황을 규명하지 못해왔는데 이 결정적 3분을 누군가 고의로 훼손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이 2014년 6월22일 세월호 선내 안내데스크에서 수거했다고 주장한 DVR과 검찰에 증거로 제출된 ‘세월호 DVR’이 상이한 것으로 의심되는 단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관련자 진술 및 수중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2014년 6월 22일 오후 11시40분께 안내데스크에서 DVR을 확인하고, 케이블 커넥터의 나사를 푸는 방식으로 케이블과 분리한 분체를 수거했다는 취지의 해군 관계자 주장을 사실로 보기 어려운 상황과 자료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조위에 따르면 세월호 선체 인양 후 해당 구역 및 해당 구역에 대한 열 제거 영상을 확인한 결과 케이블 선만 발견되고 커넥터는 발견되지 않았다. 분리 및 수거작업을 하는 과정, 안내데스크에서 우현 현측까지 DVR을 들고 나오는 과정에서도 DVR은 영상에 한 번도 포착되지 않았다.

또 DVR을 수거한 해군 중사는 “DVR이 너무 무거워서 왼손으로 엄브리컬을 잡고 오른손으로 DVR을 견 상태에서 세월호 선체 밖에 대기 중이던 하사가 엄브리컬을 당기는 방법으로 수직상승해 세월호 밖으로 나왔고, DVR을 우현 현측 외관에 올려놨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조위는 그러나 “수중영상을 보면 이 중사는 오른손으로 엄브리컬이 아닌 인도색(가이드라인)을 잡고 식당을 거쳐 카페 창문을 통해 나온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는 수직상승으로 보기 어렵고, DVR을 세월호 밖, 즉 우현 현측 외관에 올려놓는 장면도 영상에 나타나지 않아 DVR을 아예 가져오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중영상에 따르면 해군이 수거했다는 DVR은 같은 날 해경

“수거 방식·과정 등 영상에서 확인 안 돼”

“해군 수거 DVR·검찰 확보 DVR 다른 듯”

“손잡이 고무패킹 유무·잠금상태 등 상이”

이 매체자투에 보관 후 검찰에 이관한 DVR과 손잡이 고무패킹 유무, DVR 전면부 잠금상태 및 잠금부위 훼손 여부 등에서 상이하다고 봤다. 박병우 진상규명국장은 “해군이 실제로 안내데스크에서 DVR을 분리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 해군이 수거한 DVR이 검찰이 갖고 있는 ‘세월호 DVR’과 다르다는 것이 우리의 조사 내용”이라며 “해군·경이 진실을 은폐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사전에 DVR을 수거한 뒤 (6월22일에) 다시 이상 없이 꺼

내 왔다는 것을 연출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추론은 조심스럽지만 이같은 참사가 났을 때 누군가는 그 상황을 정확히 알고 싶어 하지 않았겠다. 필요에 의해서 사진에 수거해 포렌식을 통해 내용을 살펴볼 수도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데이터에 손을 댄지도 들여다보고 있다”며 “국민에게 발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해 연설이 필요하지 않았으나 추측해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수의 국가 기관이

위 과정에 개입한 정황 등 본 사건의 중대성과 긴급성, 조사내용과 관련한 긴급 제보가 절실한 점 등 때문에 이를 긴급발표 하게 됐다”며 “특별법에 따른 수사 요청, 고발 등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호승 위원장은 “2014년 8월 검찰이 세월호 CCTV를 복원한 결과 참사 발생 약 3분 전까지만 영상이 존재해 침몰 원인 및 선내 현장조치를 확인할 영상이 없었던 것 등 참사 이후 진상규명 과정에서 주요 증거물인 DVR이 조작·은폐됐다는 의혹이 다시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DVR 수거 관련 조사대상자들 대부분이 현역 군부 중으로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고, 동일 환경에서의 수중 실험을 위해 침몰현장에 넣었던 DVR이 사라지는 등 조사방해가 현재 진행 중이라는 판단으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봄과 함께 찾아온 동강할미꽃 28일 강원 정선군 정선읍 굴마리 동강 일원에 동강할미꽃이 활짝 피 봄소식을 전하고 있다.

광주경찰, 자치구 건설장비 인허가 불법행위 내사

모 구청서 직원·사업자 간 뇌물 정황 규정 어기고 건설기계 변호판 발급도

경찰이 광주 일선 구청의 건설장비 인허가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최근 일부 구청에서 건설장비 인허가와 관련해 공무원과 업자 간 뇌물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28일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광주 5개 구청의 교통행정 업무 중 건설장비 인허가 부문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

다. 경찰은 실제 5개 구청 중 2개 구청에서 불법 행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모 자치구 교통과 직원이 건설장비 인허가 과정에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오간 돈의 규모·성격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해당 직원은 최근 사직 의사를 밝혔으며, 금품을 받고 등록이 불가능한 장비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해 준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자치구 공무원도 변호판 발급 제한 기간 중 건설기계 변호판을 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중장비 등록·건설기계 변호판 발급 등 광주·전남 지역 자치구의 교통행정 전반에 문제점이 있는지 두루 살펴보고 있다”며 “불법행위 정황이 드러나면대로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과테말라서 트레일러 군중 덮쳐 30명 사망

과테말라 서부의 한 고속도로에서 27일 밤(현지시간) 대형 트레일러 한 대가 모여 있던 군중들을 덮쳐 최소 30명이 사망했다.

현지 소방대 대변인 세실로 차카지는 또다른 사고로 숨진 한 남성을 살펴보기 위해 모여 있던 사람들을 대형 트레일러가 덮쳤다고 말했다. 사고는 솔로라주 나홀라 인근에서 발생했다고 차카지 대변인은 덧붙였다.

그는 사고를 낸 트레일러 운전자가 고속도로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지 못한 채 그대로 이들을 덮쳤으며 최소 3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사고 현장 동영상은 곳곳에 시신들이 널린 가운데 사람들이 울부짖으며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미 보랄레스 과테말라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은 비극에 조의를 표하고 희생자 가족들을 돕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티서 칠레 대사 차량행렬 총격 2명 부상

아이티 주재 칠레대사의 차량행렬이 총기로 무장한 괴한들의 습격을 당해 운전사와 다른 한 명이 부상을 당하고 3명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27일(현지시간) 아이티 당국이 발표했다. 다행히 대사는 다치지 않았

다.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에 본부를 둔 자선단체 ‘아메리카 솔리다리아’(AS)는 2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파르티시오 우르테라스 대사부부가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의 정수시설 현장으로 아이티 건설담당관들과 이 단체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총격범들의 공격을 당했다고 밝혔다.

자선단체 회원들은 콜롬비아, 칠레, 멕시코, 아이티 국적의 자원봉사자들이었다.

칠레 외무부는 미국의 FBI에 해당되는 칠레수사요원들이 총격범들을 물리치고 대사 부부를 호위해서 현장으로부터 대피시켰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대사가 탄 차의 운전기사는 손목에 총상을 입었고 아메리카 솔리다리아 직원 한 명도 경상을 입었다.

현장 마을의 시장은 대사의 자동차에 수많은 총탄 구멍이 나 있었다고 말했다.

AS는 이 단체의 아이티인 운전사와 아이티 수도국의 관리 한 명, 칠레에 본부를 둔 다른 물리력 구호단체의 기술자 한 명이 실종됐었다고 밝혔지만 그 경위에 대한 세부 정보는 말하지 않았다.

이 날 대사 일행은 2010년 아이티 대지진으로 집을 잃은 10만여명의 빈민들이 거주하는 극빈지역 부랑자구에 깨끗한 물과 위생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 워시’(Project Wash)의 일환으로 이 곳의 공사현장을 방문하던 길이었다고 AS는 밝혔다.

마약 수배 영남성 제트스키로 도주하다 검거

마약 복용 혐의로 수배 중인 영국 남성이 호주 외딴 섬으로 제트스키를 타고 도주하려다 경찰에 체포됐다.

27일(현지시간) BBC방송에 따르면 호주 연방 경찰은 마약 혐의로 수배 중인 57세 영국 남성을 호주 북부 핀랜드 베이에서 150km 떨어진 사이바 이섬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섬은 파푸아뉴기니 남쪽에서 4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이 수배자는 연방 경찰과 주 경찰로부터 추적을 당해왔으며 호주 국경 수비대 경비정에 의해 이 섬 갯벌에서 체포됐다. 그는 경찰 체포 당시 석공과 다른 물건들을 휴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호주 서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남성은 지난 25일 호주 북부 퀸즐랜드 핀랜드 베이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외딴 섬으로 탈출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이바 이섬은 호주령에 속하는 토러스 해협에 있는 섬들 가운데 하나다. 호주 해군 경비정은 반이민 정책에 따라 배를 타고 호주 본토로 망명을 시도하는 사람들을 감시하기 위해 토러스 해협 지역의 순찰을 강화해 왔다.

	지역광고문의전화: 062-224-5800	전화 062-224-5800
湖南新聞		팩스 062-222-5548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이는요... 자태치료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